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8주년 추모식...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서 개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8주년 추모식이 5월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열렸다.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강만희 서울 남부보훈지청장, 김구환 광복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유족, 광복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내빈의 추모사, 추모강연, 송진우 선생 추모의 노래 합창, 유족 대표의 인사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유철 광복회장은 추모사(김구환 사무총장 대독)에서 “우리민족은 조국광복은 이루어냈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하면서 65년간 분단의 모진 세월을 견뎌 왔다”며,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본래부터 하나였던 민족동질감을 회복하여 핵 없는 한반도에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교류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